

전북형 미래혁신식품 개발 위한 R&D 지원

생진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구비 과제당 4000만원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생진원)은 '전북형 미래혁신식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전북형 미래혁신식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정부가 제시한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계획에 맞춰 도내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5대 식품분야(맛출형·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친환경 식품, 수출식품)와 더불어 향

후 보급 될 혁신식품이나 개발수준이 미흡한 제품군에 대하여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유망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나 연구개발과 제품화 역량이 부족한 도내 식품제조기업이 기술역량이 뛰어난 도내 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게 되며 과제당 약 4,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생진원은 지난해 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 등 총 3건의 과제를 발굴해 신

제품개발 4건, 특허출원 3건 등을 지원했으며, 올해 상품화를 추진해 1억원 이상의 참여기업 매출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수 원장은 "본 사업을 통해 전북을 대표하는 혁신식품이 개발 될 수 있도록 도내 기업의 우수 아이템을 발굴과 공동 연구지원은 물론이고 상품화를 위한 후속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제신청은 오는 3월 12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생진원 홈페이지(www.jif.re.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토마토 온실에 레몬밤을 둔 모습.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시설 토마토 해충 '레몬밤'으로 잡는다

담배가루이 유인 효과로 친환경 재배 가능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겨울철 시설 재배 토마토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해충인 '담배가루이'를 친환경적으로 방제하는 기술을 16일 제시했다.

담배가루이는 토마토 잎 뒷면에 알을 낳으며, 잎의 즙을 빨고 액즙(감로)을 배설하는 과정에서 열매에 그을음을 일으켜 토마토의 상품성을 떨어지게 한다. 담배가루이를 방치하면 이차적으로 잎과 열매에 피해를 주는 황화말라리아바이러스(TYLCLV)를 옮길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번식력이 강하고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허브 식물 4종을 활용해 담배가루이 방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레몬 밤 향이 나는 쌍떡잎식물 '레몬밤'이 로즈제라늄, 초코민트 등 다른 허브 식물보다 담배가루이 어른벌레(성충) 유인(피어냄) 효과가 더 뛰어난 것을 확인했다. 특히, 레몬밤에 유인되는 담배가루이 알은 토마토에 유인되는 양보다 4배 더 많았다. 레몬밤을 작물체 위 30cm 높은 위치에 뒀을 때보다 땅

위 50cm 위치에 두었을 때, 즉 식물체 위보다 아래쪽에 두었을 때 유인 효과가 약 8배 정도 높았다.

농가에서는 토마토가 어릴 때는 레몬밤 식물체를 플라스틱 화분에 담아 이랑과 이랑 사이에 10m 간격으로 배치하고, 토마토가 다 자란 뒤에는 과일 수확상자(525×365×320mm)를 이용해 땅 위 50cm 지점에 레몬밤을 놓아둔다. 레몬밤에 담배가루이 밀도가 증가해 더 증식이 힘들다고 판단되거나 레몬밤이 말라 죽으면, 담배가루이 크기보다 눈이 작은 망을 씌워 레몬밤을 제거하고 새로운 레몬밤을 설치한다.

농촌진흥청은 담배가루이 유인 효과가 있는 레몬밤 성분을 분석한 뒤, 유인 물질과 천적 활용 이용 기술을 추가로 연구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최준열 원예특작환경과장은 "레몬밤을 온실에 두면 토마토의 담배가루이 피해를 줄여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품질 좋은 토마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꽃 선물하고 화훼 농가에게 희망을'

NH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코로나19로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디지털 금융상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꽃 선물하세요! LOVE FLOWER'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NH스마트뱅킹, 올원뱅크, NHLINK에서 이벤트 대상 디지털 상품 7종 중 1종 이상 가입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2,021명을 추첨해 꽃 6개월 정기구독권(21명), 희망 꽃다발(2,000명)을 제공한다.

이벤트 대상 상품은 e-금리우대적금, NH직장인월복리적금, 월원5늘도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NH-Amundi100년기업그린코리아증권투자신탁, 직장인을 위한 신용대출(통합심사 상품) 등이다.

꽃 정기구독권 당첨 고객에게는 2주에 1번씩 6개월 간 유리 화병과 꽃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희망 꽃다발 당첨 고객에게는 1차(2월 15일부터 28일), 2차(3월 1일부터 31일)까지에 걸쳐 각 1,000명씩 추첨해 총 2,000명에게 꽃다발을 제공한다.



NH협은행 전북본부 'LOVE FLOWER' 이벤트 디지털 금융상품 가입고객 대상 내달 31일까지

농협은행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에 등재되어 있는 이벤트 페이지를 해시태그(#선물하세요! LOVE FLOWER)와 함께 본인의 SNS에 공유하고 '참여 완료'라고 댓글을 남긴 고객 중 총 5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체리블리썬 워터보틀을 제공한다.

장기요 본부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화훼 농가를 돕고 많은 분들이 꽃으로 감사와 축하,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벤트 관련 문의는 가까운 NH협은행 영업점이나 NH스마트뱅킹과 올원뱅크, 고객센터(☎1600-2800)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NH로코뱅크' 개인 간 카드결제 기능 농산물 직거래 판매에 '큰 도움'

비대면 거래 확산 속 새 판로로 활용, 농가소득 상승 직결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간편뱅킹앱 NH로코뱅크의 '개인 간 카드결제' 기능이 농업인의 농산물 직거래 판매에 큰 도움이 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농협은 지난해 9월 NH로코뱅크에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된 '페이먼트'와 제휴해 금융권 최초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 간 카드결제' 서비스를 탑재했다. 그간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거래를

할 경우 계좌이체 또는 현금만 가능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NH로코뱅크 고객은 연 2,400만원까지 별도의 단말기 없이 카드 거래가 가능해졌다.

현재 전국적으로 해당 서비스의 누적 결제금액은 21억원을 돌파했으며 이용 고객도 1만5,000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개인 간 카드결제' 서비스는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는 추세에서 새로운 판로로 활용되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학교

급식 및 오프라인 유통 수요가 감소하며 판로가 축소된 농민들은 NH로코뱅크를 통해 직거래에 나서고 있다. 앱 내 직접 결제는 물론 카드 결제 링크(URL)를 생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방법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결제 및 정산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손쉬운 시스템으로 농업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고객 선호도도 높다. 카드 결제의 간편함에 더해 직거래로 유통 단계가 축소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NH로코뱅크에 핀테크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제공해 농업인과 로코뱅크 이용자 모두에게 유용한 종합 플랫폼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도-경진원, 설 맞이 온라인 프로모션 매출 33억원 달성

연내 시즌별 기획전 계속 진행 내달 '봄 맞이 프로모션' 운영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한 온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33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준비한 이번 프로모션은 신축년 새해 코로나19로 단절된 사회적 거리를 온라인을 통해 좁힐 수 있도록 다양한 알뜰 상품으로 마련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 우체국쇼핑몰을 통해 진행된 이번 프로모션에는 약 300여개의 도내 기업이 참여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했다. 또한, 차례상 제수용품을 비롯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 상품까지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군을 넓혀 전년 대비 약 10%의 판매금액 신장을 기록했다.

조지훈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도내 기업이 온라인 시장에 성공적

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진원은 이번 프로모션을 시작으로 연내 시즌별 기획전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행사는 '봄 맞이 프로모션'으로 3월 중에 운영한다. 프로모션 신청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ta.kr)를 참고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개인정보 관리수준 6년 연속 '최고등급'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0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6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중앙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기초자치단체 등 7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관리체계·보호대책·침해대책 3개 분야, 13개 지표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다.

특히 공단은 13개 지표 중 12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며 전년 대비 1.85점이 상승한 총점 99.75점을 기록했다. 이는 공공기관 전체 평균인 84.3점을 크게 상회하는 점수로 개인정보보호 전 영역에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공단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공단은 그동안 매일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교육 시행,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침해 예방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등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정보 보호와 보안사고 예방에 힘써오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노하우와 역량을 활용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료 제공과 전북지역 영세업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국제 표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O27701)' 취득을 추진해 공단의 정보보호 관리능력에 신뢰성을 더할 계획이다.

김용진 이사장은 "공단이 6년 연속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덕분"이라며 "기업자 2,200만명과 수급자 530만 명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현대차-포스코그룹 수소사업 협력 추진

현대차그룹이 포스코그룹과 수소트럭 등 수소전기차 1,500대 공급,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동 추진, 수소 생산·이용 관련 기술 개발 등 수소 관련 사업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은 16일 포항 포스코 청송대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공영은 현대차 전략기획담당 사장, 박종성 현대제철 부사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김학동 포스코 철강 부부장, 유병욱 포스코 산업가스수소 사업부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 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은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양사 간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적극 모색해 온 끝에 이날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우선, 양사는 포스코 포항, 광양제철소에서 운영 중인 트럭 등 차량 1,500대를 단계적으로 수소전기차로 전환한다. 제철소 내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한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그룹이 수소를, 현대차그룹이 수소연료전지를 공급하는 형태의 연료전지 발전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사는 ▲그린수소 생산·이용 관련 기술 개발 ▲수소전기차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 소재 개발 등 수소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에도 주력한다.

이와 함께 공동으로 해외 지역에서 진행되는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의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등 해외에서도 수소 관련 사업 기회를 적극 모색한다. 현대차는 해당 국가 및 인근 지역의 수소전기차 등 수요 발굴도 추진한다.

/원주=이종복 기자

올해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시

국립종자원, 44개 과정 · 1384명 대상 맞춤형 운영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종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해 33개 과정, 1096명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했으며, 올해에는 44개 과정, 1384명으로 확대해 맞춤형 전문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2021년도 교육과정은 종자업·육묘업 종사자, 종자 관련 공무원, 농생명 계열 고등학생·대학생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최신 실습 기자재를 활용한 실무 중심으로 특화해 설계했으며 작물별 육종기술, 육묘 기술, 종자 마케팅, 종자품질 검증, 종자 검사 등 총 44개 교육과정의 이론 및 실습 교육(79회)을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종자(육묘)업 종사자 53%(734명), 종자 담당 공무원 20%(280명), 농생명 대학(원)생 10%(140명), 고등학생 10%(135명), 일반인 6%(80명), 외국인 1%(15명) 등 총 1384명이다.

국립종자원은 종자업계 종사자와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요구를 반영한 전문교육 과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종사자 과

정으로 다육식물 육종기술, 채소 종자 생산관리, 품종보호 영상분석, 병리검정, 유전자 분석(식화), 조직배양기술, 성분분석 활용 등 9개 과정, 공무원 과정으로 글로벌 업무역량 강화 등 2개 과정, 총 11개 과정을 신규 편성한다.

또한 종자산업의 차세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미래인력 양성, 청년 창업농 과정과 일반인의 종자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진로 체험, 아시아 개도국의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초청 연수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온라인 교육 과정을 확대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론 중심 과정 및 법정 의무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실습 및 기초 이론 과목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 강의자료로 활용한다.

2021년 교육과정별 운영계획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https://www.seid.go.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